

Development Education Issue Report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목 차

1장 개발교육,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 01

1. 들어가며
2. 개발교육이란?
3. 개발교육 왜 필요한가?
4. 개발교육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5. 한국의 개발교육
   1) 민간단체의 개발교육
   2) KOICA의 개발교육
6. 나가며

2장 유럽의 개발교육 ---------- 15

1. 들어가며
2. 유럽 개발교육의 역사적 흐름
3. 2000년대 유럽 개발교육 관련 회의
4. 유럽 개발교육 주요 기관
5. 공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유럽의 개발교육
6. 나가며



목 차

3장 Post-EFA,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 ---------- 31

1. 들어가며
2.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발교육
3.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
4. Post-EFA와 개발교육
5. SDGs와 개발교육
6. 유럽의 개발교육 Peer Review, 그리고 개발교육 국가 전략
7. 개발교육, 그리고 대국민 이해증진의 중요성
8. 나가며

4장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 ---------- 51

1. 들어가며
2. 오스트리아의 개발교육
3. 네덜란드의 개발교육
4.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
5. 나가며



1장

개발교육,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KOICA ODA Education Center
ODA교육원

ISSUE REPORT

CONTENTS

1 들어가며 ▶ 03

2 개발교육이란? ▶ 04

3 개발교육 왜 필요한가? ▶ 06

4 개발교육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 08

5 한국의 개발교육 ▶ 09
1) 민간단체의 개발교육
2) KOICA의 개발교육

6 나가며 ▶ 13

01 개발교육 (Development Education),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들어가며

2005년 7월 2일 영국 에덴버러(Edinburgh)에서는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라는 기치 아래 모인 2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영국 글렌이글스(Gleneagles)에서 개최된 G-8 정상들에게 최빈국의 부채탕감, 더 많고 더 나은 원조(More and Better Aid) 제공, 공정한 무역구조를 만드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빈곤을 역사 속으로 (Make Poverty History) 캠페인 장면

또한 4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영국 수상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응답하여 G-8 정상들은 2010년까지 추가로 480억 달러를 빈곤퇴치를 위해 공여하기로 약속했으며, 매년 18개 고채무 빈곤국에 10억 달러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국가에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내 일이 아닌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 정상들에게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낸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은 이렇듯, 단순히 국제개발에 대한 인지제고 및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지세력을 키워내는 차원을 넘어,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1호에서는 현재 다양한 선진원조공여국 및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교육이 무엇인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개발교육이란?

개발교육이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는 토대 위에서, 글로벌 이슈와 개발 이슈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획득의 차원에 그치지 않으며, 세계적 관점을 통한 통합적·비판적·창조적 사고 능력 학습, 더 나아가 앞서 Make Poverty History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개발교육은 초기에는 개발원조, 해외봉사, ODA에 관한 교육 및 지식전달에 그쳤던 것이 현재는 글로벌 시민으로써의 자의식과 책임감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까지 발전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교육은 1960년대 유럽의 개발 NGOs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국제개발에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입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이와 같은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련의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설립합니다.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을 설립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세계대공황과 같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WB)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이 처음부터 제 3세계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전후 개발의 1차 목표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지역 복구에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은 재건에 성공하였고,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국제개발의 관심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 3세계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생독립국을 돕는 국제개발 및 자원활동이 유럽지역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개발 NGOs 실무자 및 해외자원봉사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은 본국 내의 시민들 사이에서의 국제개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보며, 국제개발 및 해외원조에 대한 인지제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개발교육이 자연스럽게 파생되었습니다.

1960년대 시작된 개발교육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특별히 1990년대-2000년대는 개발교육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의 지원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American Unilateralism)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글로벌 교육(Global Education)의 필요성이 급증합니다. 또한 1990년대는 이전의 경제중심의 원조에서 사회개발중심 원조로 원조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환경, 성 평등, 아동, 교육 등과 관련한 일련의 국제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가합니다.



MDGs 8가지 목표

백미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MDG는 세계 189개국 정상이 합의한,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다룬 첫 번째 지구적 목표로써, 이를 세계에 알려야 할 뿐 아니라, MDGs 달성을 위한 원조자금 증액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유럽 각국들은 이 시기 개발교육에 대한 자금을 대대적으로 증액시켰고, 이런 지원에 힘입어 개발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개발교육 왜 필요한가?

개발교육은 먼저 국민의 국제개발 및 ODA에 대한 인지제고와 지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1990년-2000년대 유럽의 선진 원조공여국들은 대대적으로 원조자금을 증액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국민 인지제고 및 지지의 수단으로 개발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1990-2000년 ODA 증액 시기 홍보의 일환으로 ODA백서(White Paper)를 처음으로 발간합니다. 각국 모두, 이 백서에 자국 국민들이 해외원조 및 국제개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 개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ODA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최근 첫 ODA 백서를 발간한 대한민국에 큰 함의를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국민 인지제고 및 지지획득을 위해 개발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좋은 실례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2010년 노동당(Labor Party) 정부의 집권 시기가 끝나고,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으로 이루어진 보수적 성향의 연립내각(Coalition Government)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개발원조 및 개발교육은 영국 보수당 정권 하에서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79년에 보수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개발교육지원자금(Grants Funding for Development Education)'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집권한 보수적 성향의 연립내각 하에서는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를

비롯한 정부 및 시민사회 전반이 국제개발 및 개발교육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 전반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ODA/GNI 0.7% 달성에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Global Learning Program 및 Connecting Classroom 등 다양한 개발교육 관련 펀드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지난 40년간 영국 내의 활성화된 개발교육의 영향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가 국제개발 및 개발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DFID의 한 관리는 현재의 영국은, 국제개발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유례없는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국제개발 및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이나 지지획득을 위해서 개발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개발교육 시행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개발교육이란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인해 좁아진 세계에서는 더 이상 주권국가 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다양한 지구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HIV/AIDS, SARS와 같은 전염병은 지구 국경을 넘나들며 영향을 주며, 아마존 산림벌채와 같은 환경파괴는 기후변화를 야기시켜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타격을 줍니다. 지구 전역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여 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삶조차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도국의 개발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었던 개발교육은 이제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구촌 구성원으로써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선진원조공여국에서는 개발교육을 단순한 국민의 인지제고 차원이 아닌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개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교육은 또한 Post-2015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와 관련하여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는 마감시한이 2015년인 MDGs 이후에 지구공동체가 가져갈 목표를 의미합니다. 선진국 엘리트 층에 의하여 만들어진 MDGs와는 다르게, Post-2015 개발의제는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국별협의 및 주제별협의가 이루어져왔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를 구성해가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내에서도 개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고 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발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발교육은 Post-2015의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 더 큰 필요성을 갖습니다. 지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Post-2015 개발의제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The World We Want)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개발교육의 역할이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발교육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개발교육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960년대 유럽의 개발 NGOs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비정규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59년에 Oxfam에 첫 개발교육 담당 직원이 배치가 되었으며, 1970년 중반부터는 개발교육만을 전담하는 개발교육센터(Development Education Centre, DEC)가 버밍햄, 리즈, 맨체스터 등 영국 전역에 설립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ODA 증액과 함께 1970년대 말부터 개발NGOs를 토대로 개발교육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2000년대는 개발교육의 황금기로 영국의 경우 노동당 정권 아래 1997년 국제개발부(DFID)가 설립되고, 첫 ODA백서가 발간되었으며, 영국의 개발교육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인지자금(Development Awareness Fund, DAF)이 구축됩니다. 일본도 1993년 일본 주요 지역에 개발교육 거점기관을 설립하며, 개발교육 확산에 힘을 쓰게 됩니다. EU는 2005년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일반적 합의(The General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에서 'EU는 EU 시민들에 대한 개발교육과 인지제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천명하며, 다양한 개발교육 지원 펀드를 구축하여 EU 국가들의 개발교육 성장을 지원해왔습니다. 2004년 아일랜드는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체인 아일랜드개발교육협회(Irish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IDEA)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첫 번째 원조백서를 발간하

며, 아일랜드 모든 아이들이 개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민간기관에 의해 비정규교육으로 시작된 개발교육은 점차 정규교육과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국가교육과정 제정으로 공교육 차원에서의 개발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내 개발교육 확산에는 DFID의 역할이 컸지만, 교육부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는 2000년에 개정된 정규교육과정에서 1) Global Dimension 2) Citizenship 3) Community Cohesion이 필수로 다루어지도록 강제하여, 개발교육이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란 이름 하에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DFID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Developing a Global Dimension in the School Curriculum'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공교육 차원에서의 개발교육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일랜드는 공교육 내에서 개발교육 전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사교육이라는 믿음 하에 사범대학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개발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evelopment and Inter-Cultural Education(DICE)라는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아일랜드 사범대학 교사교육과정의 주요한 요소로 개발과 다문화 교육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일랜드는 초등학교에서의 개발교육 확산이 성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목표그룹을 중등학교로 옮겨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발교육

한국의 경우도, 유럽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발 NGOs를 중심으로 개발교육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1990년대 개발 NGOs들은 기부교육의 일환으로 개발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개발교육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는 2000년대입니다. 이 시기에 굿네이버스

는 개발교육 교재를 만들고, 월드비전은 옹호사업팀을 구성하여, 기존의 기부중심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개발교육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KOICA는 초중고 대상의 1회성 ODA 강의인 ODA 특강 실시, 초중고 글짓기 대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09년 대학 및 민간단체 이해증진사업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2010년 ODA교육원 개원을 통해서 한국 개발교육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1. 민간단체의 개발교육

<표 1 개발교육을 시행 중인 민간단체 현황>

	기관명	교육명		기관명	교육명
1	고앤두	지구시민교육	17	유넵(UNEP) 한국위원회	환경교육
2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COC)	개발교육, 세계시민교육	18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시민교육
3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	19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시민학교
4	굿피플	미래시민교육	20	코피온	지구시민교육
5	기아대책	글로벌시민교육	21	팀앤팀	Youth Global Action
6	서비스포피스	글로벌시민학교	22	프렌드아시아	세계시민교육
7	서울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미지센터)	세계시민교육	23	한국카리타스인터네셔널	지구시민교육
8	세이브더칠드런	세계시민교육	24	한국 YMCA 전국연맹	지구시민교육
9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25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
10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육	26	휴먼인러브	나눔교육
11	아이브릿지	글로컬그린아카데미	27	GLOED/ 글로컬문화시민교육원	세계시민교육
12	아프리카인사이트	국제개발협력교육, 아프리카 지역 교육	28	HOE	지속가능발전교육
13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29	JTS	세계시민교육
14	월드투게더	세계시민교육	30	ODA Watch	국제개발협력교육
1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31	The Bridge	세계시민교육
16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32	영국문화원	세계시민교육

유럽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간부문에서 개발교육을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개발 NGOs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30개가 넘는 민간단체들이 개발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기관들이 개발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발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COC처럼 타 민간단체들의 개발교육역량강화를 위해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교육, 글로벌/세계/지구촌/지구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나눔교육, 권리교육, 미래시민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개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DA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는 ODA Watch나 다양한 개발NGO들에게 개발교육 역량강화훈련을 제공하는 KCOC의 경우는 국제개발협력교육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교육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다양하게 번역한 글로벌/세계/지구촌/지구시민교육이 민간단체의 개발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관의 특수목적이나 성격에 맞게 미래시민교육, 나눔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개발교육 등의 이름으로 개발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집합교육, 창의적체험학습, 담임재량시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아, 초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개발 및 글로벌 이슈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을 통해 개발교육이 전파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KOICA의 개발교육

아일랜드의 정부원조기관인 Irish Aid의 경우 '개발교육과 시민사회(Development Education & Civil Society)' 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DFID의 경우도 '교육과 파트너십 팀(Education & Partnership Team)'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정부원조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2010년 KOICA ODA교육원을 신설하여, 정부차원의 개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상황입니다. KOICA의 개발교육은 크게 ODA교육원과 지구촌체험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KOICA ODA교육원의 개발교육

KOICA ODA교육원은 높아지는 OD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ODA예산 증가로 인해 급증한 ODA사업참여인력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응답하여, 2010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개원초기에 국제개발협력과 ODA,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KOICA 사업유형과 실행체계 등 일반교육과 사업관리교육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현재 범위를 확장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과정, 교육, 보건, 건축과 같은 분야별과정, PPP의 이해, 모니터링과 평가와 같은 주제별과정 등 심도 있는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체 및 관련기관 대상 파견강의를 제공하는 맞춤교육,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초중고 글짓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표2 ODA교육원 교육과정〉

교육명	대상	내용
정규교육	일반인, 사업참여자, 학생	일반교육, 사업관리교육, 섹터별교육, 주제별교육 등
맞춤교육	중소기업	요청기관의 필요에 맞게 교과목 구성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대학생	대학교에 국제개발협력 과목 개설
초중고 교원직무연수	초중고 교원	일반교원 과정, 관리자급 과정
차세대교육	초중고 학생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특강, 차세대 ODA리더개발교육





장기초등학교(위), 부평서여자중학교(아래) ODA 차세대 특강

ODA교육원은 선진공여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대상의 개발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초중고로 KOICA 임직원들과 WFK 귀국봉사단원이 파견되어 ODA, 국제개발협력, 진로, 세계시민의식 등에 대해서 1시간의 강의를 제공하는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특강을 ODA교육원 개설 이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1회성 강의에서 벗어난 총 6차시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차세대 ODA 리더 개발교육 동아리를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 중입니다. 이를 위해 KCOC와 공동으로 초, 중, 고 대상의 '우리는 세계시민'이라는 개발교육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제1회 교사 국제개발협력 특별교육 (2012)

차세대를 교육하는 초, 중, 고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ODA교육원은 2012년부터 교사대상의 국제개발협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을 시에는 하루만에 정원 100명이 마감되는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으며, 2014년 교육의 경우도 35명 정원의 교육과정에 70명이 넘는 대기자를 보이

는 등 개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 KOICA 지구촌체험관의 개발교육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개발 및 글로벌 이슈를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KOICA 지구촌체험관도 한국 개발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JICA Global Plaza와 아일랜드의 Irish Aid Volunteering and Information Centre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체험관의 개발교육 관련 활동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구촌체험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상설 전시입니다. 지구촌체험관은 몽골, 아프리카, 잉카,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우간다 등 국별전시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민관협력, 사막화, 기후변화 등 개발이슈를 다루는 글로벌 전시,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식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여행, 해외긴급구호, 환경 등에 대해서 배우는 글로벌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체험관은 2011년과 2012년에 총 2회에 걸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공동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구촌 시민학교를 개설하여 글로벌 이슈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나가며

1960년대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함에 따라 본격화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발교육은, 점점 좁아지는 지구공동체의 미래를 전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영향으로 다양한 열매들이 맺어져 왔으며, Post-2015 개발의제 시대를 맞는 지금, 개발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민간기관 및 KOICA를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양의 개발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한국의 개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음 장부터는 선진 공여국과 기관의 개발교육 사례와 한국에의 함의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1> 고미나, 조철기 (2010) 영국에서 글로벌학습을 위한 개발교육의 지원과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pp.155-171.

2> 김영환, 김선영, 정지언 (2012) 공적개발원조와 개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 51권 제3호(2012.12), pp.423-439.

3> 이상백, 박수연 (2013)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4> 이태주, 김다원 (2010)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 45권 제 2호 pp.293~317.

5> 최은봉, 박명희 (2006) 일본 NGO의 개발교육: 지구시민의식의 강화와 대안모색. 일본연구논총 제23호 (2006. 여름) pp.329-367 1225-3219 KCI.

6> Make Poverty History 웹사이트
: http://www.makepovertyhistory.org

7> 런던대학교 Institute of Education 웹사이트
: http://www.ioe.ac.uk/research/150.html



ISSUE REPORT

2장

유럽의 개발교육

KOICA ODA Education Center
ODA교육원

ISSUE REPORT

CONTENTS

1 들어가며 ▶ 17

2 유럽 개발교육의 역사적 흐름 ▶ 19

3 2000년대 유럽 개발교육 관련 회의 ▶ 21

4 유럽 개발교육 주요 기관 ▶ 24

5 공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유럽의 개발교육 ▶ 25

6 나가며 ▶ 26

01 유럽의 개발교육

들어가며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을 논하면서 유럽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은 개발교육의 시발점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개념을 개발교육이란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글로벌시민교육은 2012년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에서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을 GEFI의 3번째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과 관련하여 미국은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자랑하는 세계 제1의 공여국이지만, 유럽의 개개국가들이 합쳐진 EU와 비교하게 되면, 최대 공여국의 자리는 EU에게 돌아갑니다. 자금적인 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내에서 국제개발과 관련한 의제설정(Agenda Setting)에 있어서 유럽의 역할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교육 분야에서도 유럽은 자금적인 면과 교육의 내용, 시행수준 전반에서 타국가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개발교육과 인지제고(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DEAR)에 사용되는 돈은 연간 220 million 유로(한화 약 3,279억 1천 만원)에 달합니다. EC에서 제공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연간 250 million 유로(한화 약 3,726억 3천 만원)가 개발교육 및 인지제고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유럽지역의 개발교육에 대한 이러한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자명합니다. 국제교육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Kenneth King과 Robert Palmer의 'Post-2015 Agendas: Northern Tsunami, Southern Ripple? The Case of Education and Skill'이라는 연구는 Post-2015 개발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남반구와 북반구 참여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북반구의 쓰나미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유럽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의제설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개발교육의 개념이 전무하거나 미비하게 시행되고 있는 남반구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당연히 낮은 국민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교육의 선진화된 체계, 내용, 자금력, 협력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유럽지역의 개발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럽 지역에서의 개발교육의 역사, 개발교육과 관련한 주요 회의, 대표적인 기관과 유럽 공교육 내 개발교육 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Rajacic, Agnes et al(2010), pp.10

유럽 개발교육의 역사적 흐름

1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개발교육은 1960년대 유럽의 개발 NGOs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은 1948년-1952년 5년간 이어진 미국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으로 인해서 경제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60년대에는 유럽에서 제3세계로 국제개발의 관심이 옮겨집니다. 1960년 세계은행(World Bank, WB) 내에 제3세계 개발을 위한 기관인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가 생기고, 1961년에는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설립됩니다. 경제 재건에 성공한 유럽국가들도 이 시기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셜플랜의 집행을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는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개편되었습니다. 제3세계 개발을 위해 1960년 OEEC 내에 조직된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은 1961년 OEEC의 OECD 개편과 함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로 개편됩니다. 이러한 1960년대의 제3세계 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개발교육 역시 파생되었습니다.

OECD DAC의 전신이 OEEC DAG라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유럽 지역의 국제개발활동은 시작시기부터 잘 고안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970년 스웨덴 국제개발협회(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와 스웨덴 교육부(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세계식량기구(FAO)와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유럽 개발교육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개발교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유럽차원의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980-90년대는 NGOs 뿐 아니라 정부원조기관들이 개발교육 및

원조에 대한 대국민 인지제고에 막대한 관심과 재정을 지원해 유럽 각 국가에서 개발교육이 대폭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교육에 관한 예산을 괄목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의거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변에 머물렀던 개발교육과 인지제고 활동은, 1990년대 말엽에 이르러서는 개발 담론, 정책, 자금 모든 면에서 개발 이슈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0년대는 유럽지역 개발교육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엽부터 국제개발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개발교육은 2000년에 들어 그 중요성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해외원조의 정치공학적 측면에는 자유진영 미국과 공산진영 소련간의 제3세계를 둘러싼 세력 경쟁이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의 패망으로 세계 제 1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에게는 자기편 만들기를 위해 사용되었던 해외원조의 필요성이 급감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미국 George W. Bush 행정부 아래에서 연성 파워(Soft Power) 대신 강성 파워(Hard Power)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고, 이는 원조예산의 삭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초유의 사태는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진국 국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현실주의(Realism)의 실패를 토대로 자유주의(Liberalism)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인 연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유주의의 이상인 글로벌시민양성과 직결되는 개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개발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된 또 다른 이유는 전지구적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등장 때문입니다. 1945년에 창설된 UN과 1944년에 설립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에서 지구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배제된 반쪽 짜리 체제에 불과하였습니다. 1991년 소련의 패망 후, 급속도로 진전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하에서 세계는 처음으로 진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설립의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MDGs는 UN 189개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첫번째 지구적 목표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목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주권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글로벌시민성이 개개국가에서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교육은 MDGs의 등장과 함께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유럽 개발교육 관련 주요 회의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2000년대 들어 중요성이 강화된 개발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유럽은 일련의 개발교육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합니다. 그 시작은 2000년 11월 유럽의 개발 장관 모임 차원의 개발교육에 대한 결의서인 "Development Education Resolution of the EU Council of Development Ministers" 채택입니다. 이 결의서는 1) 유럽지역의 개발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와 NGO간의 정보 공유, 2) 개발교육의 효과적인 매개체인 공정무역의 중요성 강조, 3) NGO의 개발교육 활동 지원, 4) NGO-학교-대학-언론 등 개발교육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소통 강화 등을 장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15-17일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개최된 "European Congress on Global Education to 2015" 2) 가 가지는 의미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하에 현재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발족시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유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주권국가 (Sovereign States) 체제를 설립하였는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러한 주권국가를 넘어선 국가연합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2) 유럽에서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과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은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 주로 정부, NGOs, EC등은 개발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학교 맥락에서는 글로벌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단, 글로벌교육은 개발교육과는 다르게 개발도상국의 교육협력사업을 지칭하거나, 국가간 교육협력사업(International Education)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면에서, 마스트리히트는 주권국가의 시민이란 개념을 넘어선 글로벌시민을 양성하는 개발교육을 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격인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는 동일한 비전과 가치를 보유한 글로벌시민성을 지닌 차세대 양성을 통해, 형식적인 EU가 아닌 진정으로 연합된 유럽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에는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남반구의 국가를 포함한 총 50개 국가의 의회, 정부,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기관 대표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the Maastricht Declaration on Improving and Increasing Global Education in Europe to 2015”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선언서는 MDGs의 마감시한인 2015년까지 1) 글로벌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는 국가적인 행동계획 개발, 2) 글로벌교육 관점이 교육의 모든 단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과 3) 이에 대한 펀드를 강화할 것, 4) 글로벌 교육의 질적·양적 성장 전략을 위한 지역적, 유럽차원의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물은 ‘the European Global Education Peer Review Process’입니다.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DAC 회원국들의 개발원조 상황을 서로 체크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국가들이 서로의 개발교육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작단계에서는 유럽의회 남북센터(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사무국을 맡았으나, 2006년부터는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가 사무국을 맡아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Peer Review Process는 실질적으로 개별국가들이 더 나은 수준의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국가 전략을 개발시킬 것이 권고되었는데, 그 결과 핀란드 글로벌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19-20일에는 EU의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European Conference on Awareness-Raising and Development Education for North-South Solidarity’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에는 유럽 개별 정부기관 및 EU 행정기관, NGOs를 포함한 시민사회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1)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MDGs를 개발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할 것, 2) 인지제고와 개발교육을 EU 회원국들의 공교육(Formal Education)과 민간교육(Informal Education)에 통합할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개발교육에 관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서는, UNDP 보고서가 제안한대로, EU 회원국들이 전체 ODA의 3%를 이 분야에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회의참가자들은

2015년까지 EU 회원국들의 ODA/GNI 비율을 0.7%까지 확대시킬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효과적인 개발교육과 인지제고 활동이 MDG나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획득의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2006년 6월 EU의 의장국인 핀란드의 지원 아래 개최된 핀란드 헬싱키(Helsinki) 컨퍼런스에서는 다시금 개발교육과 인지제고 문제가 개발의제의 중심에 놓여졌습니다. 핀란드가 개발교육과 인지제고에 관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와 함께 개발협력분야의 EU 의장국 일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및 개발 관점(Global and Development Perspective)이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해서 외교부와 교육부 그 외 관련부처, 시민사회, 지방정부, 국가교육과정 담당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NGOs와 몇몇 회원국가들이 전체 ODA 자금의 3%를 개발교육에 사용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의의 결과물로 개발교육에 대한 유럽 다자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European Multi-Stakeholder Steering Committee)가 창설되었습니다.

2007년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 및 인지제고에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그룹들이 함께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 Awareness Raising'을 발간합니다. 여기에서 유럽은 개발교육의 핵심 목표가 빈곤퇴치(Eradication of Poverty)와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것에 합의합니다. 또한 이 합의서는 개발교육이 비단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와 지구환경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 국민들의 권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개발교육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발교육과 인지제고의 목적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 글로벌 개발 문제와 이에 대한 지역과 개인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호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세계의 거주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The aim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is to enable every person in Europe to have life-long access to opportunities to be aware of and to understand global development concerns, and the local and personal relevance of those concerns, and to enact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inhabitants of an interdependent and changing world by affecting for a just and sustainable world)." (Common Objectives p4)

이러한 EU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의하여 많은 유럽 국가 내에서 개발교육은 공교육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2000년대 말엽부터 유럽 국가들 내에서 외교부

(혹은 산하 원조담당정부기관), 교육부, NGOs간의 개발교육을 위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로 많은 국가들이 공교육 내에서 개발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럽 개발교육 주요 기관

유럽 국가들은 국별로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 전체 차원에서 개발교육을 다루는 기관들도 존재합니다. DEEEP(Development Education Exchange in Europe)과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1. DEEEP (Development Education Exchange in Europe)

DEEEP은 개발교육과 관련한 유럽차원의 훈련 전략을 고안하고, 개발교육을 시행하는 NGO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3년 단위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유럽의 개발 NGO들이 보다 나은 개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교육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의 구호 및 개발 NGO 협의체인 Concord(European NGO Confeder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의 감독 아래 4개의 개발교육협의체(NGO인 ITECO(벨기에), UCODEP(이탈리아), TAKSVARKKI(핀란드), DEA(영국))가 컨소시움을 이루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EEEP 웹사이트: www.deeep.org

2. GENE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유럽의 개발교육과 관련하여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관이 바로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입니다. 2001년 개발교육 분야의 지원, 자금, 정책을 책임지는 몇몇 국가 조직체들이 연합하여 GENE를 설립하였습니다. GENE의 설립 목적은 이러한 국가 조직체들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현존하는 조직과 새로 부상하는 조직들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GENE는 처음에 6개 유럽 국가들의 조직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특별히 유럽의회 남북센터(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럽의회 남북센터는 1989년 유럽의회 장관

위원회의 결정으로 1990년 리스본에 설립되었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세계화 시대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지 제고와 의회의 원칙에 따른 연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협력의 기반 제공을 주된 역할로 맡고 있습니다. GENE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존하는 개발교육과 관련한 유럽 국가 조직들을 대부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EU국가들은 2002년 마스트리히트 회의 이후로 'The European Global Education Peer Review Process'를 진행하며, 각 국가들의 개발교육과 관련한 활동 정도를 서로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GENE는 이 프로세스의 책임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GENE 웹사이트: http://www.gene.eu/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공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유럽의 개발교육

공교육 영역은 개발교육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를 인지하고,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전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외교부 및 정부원조기관, NGOs들이 다같이 연합하여, 학교 공교육 커리큘럼 내에 개발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교사 교육, 교장/교감 등의 관리자급 교육, 교과서 및 교재 발간을 통해 개발교육의 공교육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 공교육을 통해 개발교육을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의 활동을 담아보았습니다.

〈표 1. 유럽국가들의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활동〉

국가명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활동
핀란드	2008년 National Board of Education은 공교육 내에서 글로벌교육의 역할이 강화된 신규 핵심 커리큘럼을 개발함. 정부부처들은 개발 NGOs들이 개발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며, 또한 교사들의 개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학교와 NGOs간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

국가명	공교육을 통한 개발교육 활동
독일	BMZ(독일 정부원조부처)와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교육에 대한 학습 오리엔테이션 프레임워크(Orientation Framework for Learning about Global Development)'에 뜻을 같이 하고 있음. 이의 목적은개발교육이슈가학교커리큘럼에접목되도록하는것임.
아일랜드	IrishAid(아일랜드 정부원조기관)는 교육부와 함께 개발교육이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음. 개발교육이 커리큘럼에반영되도록하는일은아일랜드 개발교육 국가정책의 핵심 사업임. 아일랜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제개발 이슈를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인 일로 다루어지며, 초중등 교사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짐. 아일랜드의 모든 초등교사들은 훈련 초기에 개발교육을모두습득하도록되어있음.
폴란드	교육부, 외교부(폴란드는 별도의 정부원조기관 없이 외교부가 국제개발의 실행업무를 맡고 있음), NGO의 긴밀한 협력으로 2008년 핵심 커리큘럼 개정시 많은 글로벌교육 주제들이 중등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됨.
스웨덴	글로벌교육은 '글로벌 학교(Global School)'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개의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또한 학교들이스스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지원하고있음.
영국	개발교육은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음. 국제개발부(DFID)는 교육부, NGOs, 대학 및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교육이 학교교육에포함되도록하는일에힘쓰고있음.

이렇듯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민간 루트를 통해서 전파되던 개발교육을 넘어서서 공교육을 통해 전국민들에게 개발이슈가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공교육 차원의 개발교육 확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외교부 혹은 외교부 산하의 원조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개발교육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 교육 담당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나가며

다자기구의 국제회의 석상을 처음 접하게 된 한국인이 의례히 겪게 되는 것이 숱하게 많은 전문용어(Jargon)와 낯선 주제들 속에서 느껴지는 괴리감과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는 소외감입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유럽이 중심이 된 OECD DAC의 개발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이 공여국이 아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받은 원조의 대부분이 유럽국가들이 아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수원국 차원에서도 국제개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시기부터 다자기구 체제 안에서 개발을 이루어왔고, 공여국으로 위치가 전환된 이후에도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이를 시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국가의 아이들은 개발교육을 통해서, 개발 및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어린 시절부터 공유하고, 학습하여 공통의 비전과 이해를 지닌 세대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개발교육에 대한 유럽과 타국가들간의 노력의 차이가 빚은 결과물 중 하나가 서두에서 언급한 Post-2015 개발의제를 향한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 차이입니다. 선진국 엘리트들에 의해서 Top-down 식으로 만들어졌던 MDGs와는 다르게 Post-2015 개발의제는 지구촌 구석구석의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Bottom-up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UN 작업반에 의한 국별논의, 글로벌논의, 주제별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UN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과 SDG 열린작업반(Open Working Group) 역시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또한, UN Millennium Campaign, ODI, the World-Wide Web Foundation과 Ipsos Mori 4개 기관이 협력하여 My World(www.myworld2015.org)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Post-2015 개발의제로 꼽혀야 하는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190개가 넘는 국가에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2015년부터 시작될 전지구적 목표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들마다 이에 대한 온도차이가 심해서 결국은 편향된 의견이 지구적 의제에 담길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등 남반구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Post-2015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고, 때에 따라 전무하였던 것에 반하여, 영국 같은 선진국 국가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가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의 핵심 논의대상이었으며, DFID 내에 이를 위한 특별 부서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의견을 통합하여 받는 'Towards a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라는 협의과정(Consultation Process)이 있었으나, 이에 참여한 119개의 기관 중 67%가 유럽의 NGOs였으며, 남반구로부터 온 응답은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 문제에 집중되었던 MDGs와는 다르게 Post-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 청년실업문제,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등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지구적 목표의 달성은 소수의 개발분야 실무자들이나 엘리트 층의 관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Post-2015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의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대중이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새로 만들어질 Post-2015 아젠다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죽어있는 목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Post-2015 개발의제의 성패는 실상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개발교육과 인지제고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 중심의 원조를 공여 받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자협력분야에서 소외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의 기적 속에서 현재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G-20,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Post-EFA(Education for All)를 만들어낼, 교육 분야의 세계적인 대회인 2015 인천 World Education Forum의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행사 개최지로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국제개발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녹여내어 진정으로 세계가 원하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간 국제개발 분야의 주요 아젠다를 정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룰을 만들어오는데 유럽이 끼친 영향은 막강합니다. 이들이 이렇듯 국제사회에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Jubilee 2000, Make Poverty History 같은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데에는 개발교육이 큰 기여를 해왔으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현재에도 개발교육에 대한 정책적, 자금적 지원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Post-2015의 모토는 'The World We Want'입니다. 현재까지 국제개발 분야에서 세계는 북반구의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The World They Want'의 모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주변부에서 타국가가 이미 정해놓은 룰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심부에 서서 국제개발의 아젠다를 선도하고 룰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가 될 것인지. Post-2015를 앞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개발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1> 고미나, 조철기 (2010) 영국에서 글로벌학습을 위한 개발교육의 지원과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pp.155-171.

2> 이승주 (2013) Post-2015 시대 개발협력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정책학회.

3> 이태주, 김다원 (2010)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 45권 제 2호 2010(293~317).

4> 임소진 (2013) 모두를 위한 품위있는 삶: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개발과 이슈 제12호. 2013.9월.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5> European Multi-Stakeholder Steering Committee (2007)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 Awareness Raising. DEEEEP.

6> GENE (2008) Quality in Global Education: An Overview of Evaluation Policy and Practice. Amsterdam: GENE

7> Krause, Johannes (2010) European Development Education Monitoring Report "DE Watch" DEEEP.

8> King, Kenneth & Palmer, Robert (2013) Post-2015 Agendas: Nothern Tsunami, Southern Ripple? The Case of Education and Skills. Norrag Working Paper #4.

9> OECD,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 Global Education, Public Awareness-Raising and Campaigning on Development Issues. An Overview of Evaluation Practice and Policy.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Informal Experts' Workshop Development Communication, Advocacy and Education: Tips and Tools for Improving Evaluation. Bonn, 19-20 March 2007.

10> Rajacic, Agnes et al. (2010) Final Report of th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Actions of the Main European Actor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European Commission.

11> United Nations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ISSUE REPORT

3장

Post-EFA,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

KOICA ODA Education Center
ODA교육원

ISSUE REPORT

CONTENTS

1 들어가며 ▶ 33

2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발교육 ▶ 34

3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 ▶ 36

4 Post-EFA와 개발교육 ▶ 38

5 SDGs와 개발교육 ▶ 40

6 유럽의 개발교육 ▶ 42
Peer Review, 그리고 개발교육 국가 전략

7 개발교육, 그리고 대국민 이해증진의 중요성 ▶ 44

8 나가며 ▶ 47

01 Post-EFA,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

들어가며

2015년은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2015년은 전 세계가 같은 목표 아래 세계의 빈곤과 싸우고, 전 세계를 개발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목표시한이 완결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2015년이 중요한 이유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은 국제개발분야의 3가지 주된 목표인 Post-2015 개발의제, Post-EFA(Education for All),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새로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그간 개별적으로 움직여 온 개발의 핵심요소 세 가지, 개발, 교육, 환경이 하나로 만나진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의한 단일 목표 아래서 빈곤퇴치를 고민하게 된 MDGs가 국제개발역사의 큰 획을 긋는 시금석이었듯이, 2015년에 새로이 지정될 목표는 MDGs보다 큰, 국제개발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를 한 단계 진일보 시킬 시금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장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인 Post-2015 시대에 왜 개발교육이 더욱 큰 중요성을 지니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발교육

개발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글로벌시민(Global Citizen)'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럽의 종교전쟁이 끝을 맺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 이후 세계는 주권국가(Sovereign State)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후 이 주권국가 체제는 300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그린, 주권국가체제를 넘어선 세계연방의 꿈은 1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2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및 브레튼우즈기관(Bretton Woods Institutions)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가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UN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회의가 바로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연습의 시작입니다. 표 1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MDGs 수립 전까지 기억할만한 핵심적인 국제회의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표 1. 2차 세계대전~2000주요 국제회의 및 선언 목록>

- 1948.12.10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채택
- 1959.11.20 'UN 아동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Child)' 채택
- 1968.4.22-5.13 이란 테헤란 '국제인권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 1972.6.5-16 스웨덴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 1975.6.19-7.2 멕시코 멕시코시티 '제 1차 세계여성회의(First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79 UN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EDAW)
- 1980.7.14-30 덴마크 코펜하겐 '제 2차 세계여성회의(Second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85.7.15-26 케냐 나이로비 제 3차 '세계여성회의(Third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89.11.20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
- 1990.9.29-30 미국 뉴욕 '세계아동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
- 1990.3.5-9 태국 좀티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
- 1993.6.14-25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1993 '여성폭력철폐선언(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채택
- 1995.3.11-12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WSSD)'
- 1995.9.4-15 중국 북경 '제 4차 세계여성회의(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 1996 '21세기 개발협력 전략: shaping the 21st century'
- 1997.12 일본 교토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 2000.4.26-28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The World Education Forum)'
- 2000.9.6-8 미국 뉴욕 제 55차 UN 총회 'UN 밀레니엄 정상 회담(Millennium Summit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의 백미는 MDGs입니다. 세계 189개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목표 아래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개발의 전 분야를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구체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개별국가 중심의 원조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로 넘어온 것을 보여 준 예시가 각국의 원조 정책과 전략의 변화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간 자국의 이익, 혹은 인도주의적 목표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정해져왔던 각국의 원조 정책과 전략을 MDGs로 통합하여, 지구적 목표를 개별 국가의 이익에 앞선 목표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특별히 MDGs의 8번째 목표로 개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을 지정하고, MDGs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연습해왔습니다. MDGs가 말 뿐인 약속으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 'UN 개발재원국제회의' 및 2008년 카타르 도하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점검을 위한 개발재원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원조(More Aid) 뿐 아니라, 더 나은 원조(Better Aid)를 강조하며,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9년 아크라, 2011년 부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원조효과성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MDGs 달성 시한의 끝이자, 새로운 지구공동의 목표인 Post-2015 개발의제의 시작인 2015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Post-2015 개발의제는 목표 수립과정부터 MDGs와는 다르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MDGs의 목표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이었던 데 반해, Post-2015 개발의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 퇴치 및 사회개발 이슈에 한정되었던 MDGs와는 다르게 Post-2015 개발의제는 사회개발 뿐 아닌 경제개발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어떻게 전 세계가 모여서 해결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지구촌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그리고 만들어갈까' 하는 차원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MDGs의 모토인 'We Can End Poverty 2015'와 Post-2015 개발의제의 모토인 'The World We Want'에서도 볼 수 있는 차이입니다.



MDG로고



Post-2015개발의제로고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넘어선 자아정체성을 지닌 글로벌시민의 양성입니다.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은 현재 국가별로 개발교육이란 이름 외에도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개발교육(Global Development Educatio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1] 글로벌시민을 양성한다는 핵심은 같습니다. 환경, 교육, 보건, 젠더, 인권 등 전 영역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헌신할 글로벌시민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가 Post-2015 개발의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개발교육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서도 Post-2015 개발의제와의 연계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발교육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 혹은 참여적 학습(Participatory Learning)입니다. 이는 기존 학교현장에서 일반시된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참여하고,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는 쌍방향적 교육을 의미합니다. 일련의 원조효과성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어 온 것이 바로 수원국의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구조는 필연적으로 원조의존성을 낳고, 이는 수원국의 자립 및 지속가능발전에 득보다는 해가 됩니다. 이런 폐해를 끊고자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원조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원조가 강조되고 있으며, 특별히 지역주민들을 개발의 주된 행위자로 참여시키는 참여적 개발기법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Based Approach, RBA), 주인의식(ownership),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수원국 주민 참여 등의 화려한 어구들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회의석상에서 회자되어도,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무의미한 웅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은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을,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을, 핀란드 및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체인 GENE에서는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을, 체코 공화국은 글로벌 개발교육(Global Development Education)을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면에서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국제개발분야의 흐름이 Post-2015 개발의제에도 주요한 정신(ethos)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엘리트들에 의해 Top Down 방식으로 만들어진 MDGs와는 다르게, Post-2015 개발의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가능한 많은 이들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개발교육의 정수인 글로벌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함양은 선진국보다 오히려 개도국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Post-2015 개발의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약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본다면, 2012년 9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의해 발족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의 3대 우선 순위 중 하나로 글로벌시민의식이 정해진 점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표 2. GEFI의 3대 우선순위>

1. 교육에의 접근성 확대(Put Every Child in School)
2. 학습의 질 향상(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3. 글로벌시민 양성(Foster Global Citizenship)

혹자는 최근에 불고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열풍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GEFI에서 글로벌시민양성을 언급한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UN 차원에서 글로벌시민양성이 논의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이러한 일련의 역사와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UN 차원에서 GEFI를 통해 공식적으로 글로벌시민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즉 주권국가들의 모임에서, 주권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최근 많은 UN 차원의 회의나 행사들이 국가 간을 의미하는 국제('inter'+'national')란 용어보다 전지구적 차원을 의미하는 글로벌(global)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는 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Post-2015 시대에, 개개국가의 시민(National Citizen)을 넘어선 글로벌시민(Global Citizen)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개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UN의 총수가 왜 모든 것에 앞서서 '교육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다!'라고 GEFI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국제사회의 교육분야협력인 Education for All(EFA), 그리고 Post-EFA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Post-EFA와 개발교육

앞서 <표 1. 2차 세계대전~2000 주요 국제회의 및 선언 목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90년대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이 대폭 강화된 시기입니다. 1991년 소련의 몰락과 함께 기존의 미소 양극체제(Pax Russo-Americana)는 미국 중심 일국체제(Pax Americana)로 재편됩니다. 또한 인터넷의 등장, 증가하는 다국적기업 및 국제 NGO의 활동 등으로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급속도로 강화되며, 1990년대는 본격적인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아동(1990), 교육(1990), 환경(1992), 영양(1992), 인권(1993), 인구(1994), 사회개발(1995), 여성(1995), 인간거주(1996)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UN차원의 국제회의들이 개최됩니다. 1990년에 태국 좀티엔(Jomtien)에서 개최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는 교육 분야와 관련한 주요 국제개발기관(UNESCO, UNICEF, UNDP, UNFPA, 세계은행)이 함께 모인 첫 번째 국제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155개국에서 온 대표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채택하였고, 표 3은 본 회의에서 채택된 6개 교육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3. 1990 좀티엔 회의 6개 목표>

1. 학습접근기회의보편화(Universal Access to Learning)
2. 학습의 평등성 실현(A Focus on Equity)
3. 학업성취도 제고(Emphasis on Learning Outcomes)
4. 기초교육의 개념 확대 및 실천
   (Broadening the Means and the Scope of Basic Education)
5. 학습 환경 마련(Enhancing the Environment for Learning)
6. 2000년까지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파트너십강화
   (Strengthening Partnerships by 2000)

좀티엔 회의에서 제기된 6개 목표는 마감기한인 2000년까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세네갈 다카르에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이 개최되어 새로운 교육목표를 제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 164개국 대표들을 포함 1,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인 본 회의에서는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6개 교육 목표는 표 4와 같습니다.

<표 4. 2000 다카르 행동계획 6개 목표>

1. 영유아교육 양적·질적 확대
2. 양질의 보편적 무상 초등교육 제공
3. 적절한 학습 및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 요구 충족
4. 성인 비문해율 50%이상 개선(특별히 여성)과 성인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
5. 2005년까지 초등에서의 성불평등 철폐, 2015년까지 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
6. 교육의 질적 개선, 특별히 문해, 수리, 핵심적인 생활기술 면에서의 측정가능한 성과 달성

특별히 다카르 교육 목표 6개 중 2개인 '양질의 보편적 무상 초등교육 제공'과 '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은 MDGs의 교육 및 성평등 관련 목표로도 제정되어 많은 진보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MDGs와 마찬가지로 EFA 목표도 2015년 기한에 맞추어 달성이 불가하며, 따라서 MDGs가 Post-2015 개발의제로 이어지듯, EFA 역시 Post-EFA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입니다.

2012년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Post-EFA 제정을 위한 2015년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한국에 제안하였고, 이에 2015년 5월 19-22일 인천 송도에서 Post-EFA를 결정짓는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Post-EFA 의제 설정에의 첨예한 논의와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5월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무스카트 합의(Muscat Agreement)를 통해 다음 2030년을 목표로 한 7개 교육 목표가 도출되었습니다.

<표 5. 무스카트 합의(Muscat Agreement)에 따른 Post-EFA 목표>

1. 최소 1년의 무상의무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영유아교육
2. 최소 9년의 양질의 무상의무 기초교육 완성 및 적정 학습 성과 달성
3. 청소년과 성인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유창한 문해력과 수리력 보유
4. 직업교육과 중등 및 고등교육을 통한,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5. 글로벌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혹은 포함하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함양
6. 양질의 교사를 통한 학습
7. 교육 재정 및 협력

무스카트 합의의 7개 목표 중 유의미하게 볼 것이 바로 목표 5의 '글로벌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혹은 포함하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함양'입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다른 목표들은 1990 혹은 2000년의 EFA나 MDGs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2] 목표 5는 이전 회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

2) 목표 6과 7은 투입 관련 세부목표이며, 결과 관련 세부목표는 1에서 5까지임.

은 전혀 새로운 글로벌교육 목표라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글로벌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는 개발교육이 주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Post-EFA의 목표는 그 대상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개발교육이 기존의 선진국 테두리를 벗어나 개도국 등 전 세계에서 강조되는 교육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입니다.

SDGs와 개발교육

이는 비단 교육 분야 개발목표인 Post-EFA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와 Post-EFA 외에도 2015년에 제정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입니다. 지금은 Post-2015 개발의제와 SDGs가 하나의 목표로 합쳐지게 됨에 따라 SDGs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간 지속가능발전은 주로 환경에 집중된 개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지구정상회담,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개발정상회담,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회의[3]는 그간 개발의 대척점에 서있었던 환경이 개발의 정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도케 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SDGs가 Post-2015 개발의제와 겹쳐지게 되면서, SDGs는 그간 환경 분야에 집중되었던 모양에서 개발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목표로 변하게 됩니다. SDGs를 만드는 것을 담당하는 Open Working Group(OWG)이 현재까지 만들어낸 목표 중 교육 분야 목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3)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지구정상회담과 같은 장소인 리우에서 20년만에 개최된 회의로 'Rio+20'란 별칭을 지니고 있음.

<표 6. Open Working Group에 따른 SDGs[4] 의 교육목표>

[SDGs의 교육목표]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 양질의 공평한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4.2 양질의 영유아 발달, 보육, 유치원 교육 보장
4.3 대학을 포함한 양질의 기술, 직업, 고등교육에의 동등한 접근 보장
4.4 청소년과 성인의 고용, 괜찮은 일자리, 창업을 위한 기술적이고 직업적인 기량 증진
4.5 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 및 취약한 계층에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의 동등한 접근 보장
4.6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증진
4.7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한 생활습관,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글로벌 시민, 문화다양성 교육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식과 기량 증진

표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SDGs에서도 7개의 교육 목표 중 하나로 개발교육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개발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는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때부터입니다. 본 회의에서 개발 NGO들은 지속가능환경교육과 개발교육의 핵심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데 뜻을 같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대로, 환경문제에 함몰되었던 초반의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점차 환경 분야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개발' 그 자체로 이동하게 된 것처럼, 환경이슈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도 기존의 개발교육, 글로벌시민교육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앞서 논의된 무스카트 합의나 OWG의 SDGs 초안 모두 최종 Post-EFA나 SDGs의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Post-EFA 회의가 개최되는 내년 5월, SDGs가 결정될 내년 9월까지 지속적인 논의와 의제간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최종으로 선정될 Post-EFA와 SDGs, Post 2015 개발의제의 목표들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목표들이 개발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국의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지느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입니다.

4) SDGs는 Post-EFA와 마찬가지로 마감기한을 2030년으로 잡고 있음.

유럽의 개발교육 Peer Review, 그리고 개발교육 국가 전략

개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이미 MDGs 수립 시기에서부터 있어왔고, 유럽의 국가들은 2000년대에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자국 내 개발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유럽의 개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에 설립된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는 각 국의 개발교육을 대표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킹 단체로, 우수사례 공유 및 개발교육 정보제공을 통해, 유럽 각 국가 내 개발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ENE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 및 각국의 개발교육을 대표하는 기관들은 표 7과 같습니다. 국가별로 외교부, 개발원조전담기관, 교육부, 개발교육합의체, 연구소 및 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유럽국가들과의 개발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 7. GENE 참가국 및 국별 대표기관>

국가명	GENE에 참여 중인 각국의 개발교육 대표기관
네덜란드	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NCDO)
노르웨이	Norad, the RORG network
독일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Engagement Global
룩셈부르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벨기에	Feder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Belgium Technical Co-operation
스위스	Foundation Education and Development
스페인	AECID
슬로바키아	Slovak Aid
아일랜드	Irish A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영국	Think Global, UK Aid
오스트리아	Austrian Development Agency(ADA), Ministry of Education, KommEnt
체코 공화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zech Development Agency
포르투갈	Instituto Camoes, CIDAC
폴란드	Polish Ai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핀란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ational Board of Education
헝가리	HUNIDA

GENE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별 개발교육 동료평가(Peer Review) 시행입니다. 동료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료평가는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도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한 후 2012년 첫 번째 동료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개발정책 전반의 동료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발교육에 특화된 동료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U로 묶여진 유럽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이들 유럽 국가들의 개발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개발교육 동료평가는 GENE 회원국들의 공동자금지원(Basket Funding) 형식으로 구성된 자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European Congress on Global Education to 2015'에서 동료평가 시행이 결정되었고, 2004년 키프로스(Cyprus)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Pilot)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국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래 표 8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8개국의 동료평가 발간연도, 국가, 보고서명과 평가 국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표 8. GENE 개발교육 동료평가(Peer Review) 보고서 리스트>

연도	국가명	Peer Review 보고서명 [5]	평가국가
2004	키프로스	Global Education in Cyprus	오스트리아, 영국
2004	핀란드	Global Education in Finland	독일, 네덜란드
2005	네덜란드	Glob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2006	오스트리아	Global Education in Austria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2008	체코공화국	Global Education in Czech Republic	아일랜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2009	노르웨이	Global Education in Norway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2009	폴란드	Global Education in Poland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2013	슬로바키아	Global Education in Slovakia	오스트리아, 핀란드

또한 유럽국가 중 7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교육에 관한 국가전략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료평가의 권고사항으로 국가별 전략 수립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전략보고서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9는 현재까지 개발교육에 관한 국가전략을 보유한 국가들의 전략 보고서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5) GENE는 개발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개발교육과 같음.

<표 9. 개발교육 국가별 전략 보고서 리스트>

국가명	개발교육 전략 보고서명
독일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아일랜드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7-2011
오스트리아	Strategy Global Learning in the Austrian Education System
스페인	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aper
체코공화국	National Strategy for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2011-2015
포르투갈	National Strategy for Development Education 2010-2015
핀란드	Global Education 2010

개발교육, 그리고 대국민 이해증진의 중요성

이 장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ODA 증액과 Post 2015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개발교육과 이를 포함하는 조금 더 큰 개념인 국제개발 이해증진(Development Awareness Raisin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OECD DAC 국가들이 ODA 증액 시기 가장 관심을 쏟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개발교육과 홍보를 포함한 대국민 이해증진 사업입니다.

이해증진은 크게 홍보와 개발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초창기에는 홍보에만 집중하다가, 국가의 국제개발경험이 무르익으면서 국민에게 체계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개발교육 방식으로 외연을 넓히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DA 증액과 함께 한국정부는 이해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국민 홍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4일에 개최된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에서 DAC 동료평가 권고사항 활용계획에 종합홍보전략 수립 및 ODA 홍보예산 확대('15년 이후 전체 ODA 대비 0.2% 수준)를 합의하였습니다. '국민적 공감

대 확보',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라는 기치 아래 대국민 홍보는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이래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도 ODA백서 발간 준비 과정을 통해 홍보 외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홍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이해증진'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변경합니다. 이에 2014년 1월 13일에 개최된 제17차 국개위에서는 국내 ODA 기반 확대를 위해 이해증진전략 수립을 2014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13일에 개최된 ODA홍보 T/F 2014년 1차 회의 시 기존 'ODA 통합홍보 T/F'를 'ODA 이해증진 T/F'로 변경하고, 본 회의 결과문서에 'ODA 이해증진'을 'ODA 홍보 및 개발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홍보를 넘어선 본격적인 개발교육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해증진, 대국민 홍보 및 개발교육 시행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왜 ODA 자금을 내국인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답하자면, 먼저 이해증진과 개발교육에 ODA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DAC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OECD DAC의 통계보고지침(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에 따르면, 개발교육을 포함한 이해증진(Development Awareness)은 DAC ODA의 한 분류 코드(code 181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10에 담겨져 있습니다.

<표 10. OECD 통계보고지침 이해증진 코드>

Line I.A.8.1 Development Awareness(code 1810)

106. Funding of activities designed to increase public support, i.e. awareness in the donor coun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needs, and issues. Includes the funding of special lectures or curricula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national aid programme. Excludes country-specific or product-specific announcements and publicity or informational expenditures for which enhanced public support for development is an incidental consequence, rather than a principal objective. Reporting should be net of income from sales of publications or other payments for services rendered.

실제로 OECD DAC 국가의 이해증진자금은 ODA로 계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UNDP는 전체 ODA 자금 중 3%를 대국민 이해증진과 개발교육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2년 총 ODA 자금은 1조 5천 9백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UNDP의 권고

사항을 따른다면, 전체 ODA 자금의 3%인 477억 원 가량의 자금이 이해증진과 개발교육 자금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DAC에서는 이해증진자금을 ODA 계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 부분은 이해증진자금이 ODA로 쓰이는 게 합당한가하는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간 DAC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이해증진에 사용했기에 이러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며, 닮아가고자 애쓰는 기존의 DAC 공여국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혹은 여우처럼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ODA의 3%를 개발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서로만 남아있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방정부에 속해있는 몇몇 지방정부의 경우 자신들에게 할당된 ODA 자금의 20%를 개발교육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권은 원조관련정부기구를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로 승격시키고 ODA를 공격적으로 증액합니다. ODA 증액과 함께 필요해진 국민들의 ODA 지지를 위해, 영국은 1999년 'Building Support for Development'라는 개발교육을 포함한 이해증진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략 수립 첫 해인 1998/1999년 개발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이해증진에 투여된 자금은 £1.5 million(한화 약 25억 7백만 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2009/2010년 £24 million(한화 약 401억 2천 5백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1998/1999회계년도에서 2009/2010년까지 영국이 대국민 이해증진에 사용한 ODA 자금은 약 £116 million(한화 약 1,939억 3천 8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국민 이해증진 및 개발교육에 대한 노력은 그간 세계를 제패해 온 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 OECD DAC에 가입한 체코 공화국의 경우, DAC 가입 이전부터 개발교육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표 7. GENE 참가국 및 국별 대표기관>에서 볼 수 있듯이, GENE에 외교부와 KOICA와 같은 역할을 하는 Czech Development Agency가 체코 개발교육 대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DAC 가입국이 아닌 상태에서도 개발교육 동료평가를 아일랜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개발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2011-2015)'을 수립하고, 이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개발교육을 시행 중인 체코의 개발 NGO들을 위한

개발교육 장기지원자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교육 등 대국민 이해증진에 사용되는 돈은 DAC의 ODA 산정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미 많은 타 공여국에서 활발히,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증진 없이는 양질의 ODA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발교육을 통해서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 인력이 키워지고, 대국민 이해증진을 통한 국민의 원조에 대한 바른 시각과 관심이 생길 때에라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원조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점은, 제대로 된 인력, 철학과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효과적으로 짜여진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도국 개발과 공여국 이미지 모두에 가져오게 될 피해입니다. 이는 종국에는 ODA 자금 자체의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가며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7%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8%로 관련 통계를 내는 OECD 7개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렇듯 자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대어 원조증가를 지속적으로 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내 배가 고픈 시점에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글로벌 리더 국가의 책무를 다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은 우리가 얼마나 더 선진화되고 양질의 원조를 하는가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남과 나를 가르는 사고가 아닌, 지구적 연대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고민하는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없이는 '왜 우리도 힘든데 남을 도와야 하는가?' 란 질문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 분쟁, 성차별, 질병, 빈곤

과 기아, 지구촌 정의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나의 문제임을 자각하는 글로벌시민의식 속에서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원조가 가능합니다. 개발교육은 우리나라와 세계 모두를 부유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ODA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제적인 약속이라는 틀에 갇혀서 무분별하게 ODA를 집행하는 것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ODA를 얼마나 지혜롭게 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인에게 국제사회로의 시각을 넓혀주고, 국제인의 꿈을 심어 준 한국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3년 GEFI를 통해 국제사회에 글로벌시민양성의 꿈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글로벌시민교육을 포함한 세계의 글로벌교육발전의제를 논하게 될 2015년 한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Post-EFA 회의,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시작되는 Post- 2015 개발의제의 성패. 이 모든 것이 Post-EFA, Post-2015 시대의 대한민국이 개발교육에 대한 특별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1> 국무조정실 (2014).『ODA 홍보 T/F '14년 1차 회의 개최 결과』, 세종: 국무조정실.
2> 관계부처 합동(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2013).『OECD DAC 개발협력 정책 집행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3> 마이클 T. 스나르 & D. 닐 스나르 (2006).『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글로벌 이슈』, 서울: 명인문화사.
4> 이화여자대학교 (2014).『대국민 ODA 이해증진 종합전략 수립계획(안)』, 세종: 국무조정실.
5> 한국국제협력단 (2008).『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울
6> 한국교육개발원 (2013).『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7> DAC (2010).『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Paris: OECD DAC.
8> DFID (1999).『Building Support for Development: DFID Strategy Paper』, London: DFID.
9> Geary, Frank (2013).『Development Education Without Borders. 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Belfast: Centre for Global Education.
10> Hilary, John (2013) 'Putting the Politics Back In: Radical Education and Action in the Cause of Social Justice'『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Issue 17』, Belfast: Centre for Global Education.
11>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5)『Glob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Lisbon: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12>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KommEnt (2003).『National Structures for the Organization, Support and Funding of Development Education』,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KommEnt.
13> O'Loughlin, Eddie (2004).『Improving and Increasing Global Education through a peer review process』, ZEP 27 (2004) 2, S. 29-31.
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Czech Republic (2011)『National Strategy for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2011-2015』, Prah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Czech Republic.

웹사이트

GEFI 웹사이트 http://www.globaleducationfirst.org/
GENE 웹사이트 http://www.gene.eu/links/
UN 웹사이트 http://www.un.org/
UNESCO 1990 태국 좀티엔 EFA 회의:
http://www.unesco.org/en/efa/the-efa-movement/jomtien-1990/
UNESCO 2000 세네갈 다카르 EFA 회의: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leading-the-international-agenda/education-for-all/the-efa-movement/dakar-2000/

신문기사

국민일보 2014년 9월 19일자. [2015 예산안-'묻지마' 확장 논란] "빚 늘더라도 경기부양" 나라곳간 채우기 사실상 포기



ISSUE REPORT

4장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

KOICA ODA Education Center
ODA교육원

ISSUE REPORT

CONTENTS

1 들어가며 ▶ 53

2 오스트리아의 개발교육 ▶ 54

3 네덜란드의 개발교육 ▶ 57

4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 ▶ 60

5 나가며 ▶ 63

01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개발교육과 글로벌 시민교육

들어가며

2014년 12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존엄성을 향한 2030까지의 길: 빈곤의 종말, 모든 삶의 전환, 지구 보호(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란 제목 하에 2015년 이후 개발목표에 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 7월 14-19일 열린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 13차 마지막 세션에서 결정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안을 내놓았습니다. 8개의 목표로 이루어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비해 너무 많은 목표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12월 4일에 발간된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는 SDGs의 수를 줄일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MDGs에 비해서 SDGs의 수가 현격히 많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새로 제정될 SDGs는 단순히 MDGs가 달성되지 않아서 이의 시행기한을 15년 연장한 수준의 목표가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 문제에 한정되었던

MDGs와는 다르게 SDGs는 전 세계의 경제, 사회, 제도, 환경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MDGs의 가장 큰 공헌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공동의 목표 아래 빈곤국의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친 15년을 경험케 한 것이라면, SDGs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사회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의 목표 아래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15년을 선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 2015년, 우리의 개발교육 역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s 제정을 눈 앞에 둔 지금 개발교육의 숙제는 비단 대국민 ODA 이해증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4장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40년간 개발교육을 꾸준히 성장발전 시켜온, 그리고 최근 교육의 외연을 개발 이슈 너머로 확대해가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개발교육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의 GEFI 발족 및 내년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 한국 개최로 국내에서 급속한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개발교육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 개발교육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KOICA와 같은 일을 하는 오스트리아 외교부 산하의 Austrian Development Agency(ADA)의 개발교육 책임자인 Helmuth Hartmeyer 박사는 현재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 협의체인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표 1. GENE의 현재 이사회 및 사무국 구성>

- ▶ 의장 : Helmuth Hartmeyer (오스트리아 ADA)
- ▶ 이사 : Frans van den Boom
- ▶ 이사 : Arnfinn Nygaard (노르웨이 RORG)
- ▶ 이사 : Mirjam Bonting (네덜란드 NCDO)
- ▶ 이사회 자문관 : Liam Wegimont
- ▶ 사무국 조정관 : Eddie O'Loughlin

ADA의 개발교육 책임자인 Helmuth Hartmeyer 박사가 GENE의 대표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는 현재 유럽 개발교육 파트너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오스트리아는 GENE의 개발교육 동료평가(Peer Review)에 활발히 참여하여, 키프로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개발교육을 평가한 바 있으며, 2005-2006년에는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및 GENE,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으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서 개발교육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평가팀은 오스트리아에게 개발교육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두 차원의 개발교육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국가 차원의 개발교육 전략(Strategy Global Learning in the Austrian Education System[1])은 오스트리아 교육과정 속에 있는 개발이슈를 포함한 글로벌 학습 요소의 구조적 통합 및 질적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 교육부, ADA, NGOs, 초중고 및 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 그룹(Strategy Global Learning in the Austrian Education System)이 이 국가 차원의 개발교육 전략 수립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개발교육 전략은 오스트리아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개발교육을 확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1) 공교육 시스템 2) 성인교육 3) 비정규 교과활동 4) 고등교육 이렇게 4개 분야를 선정하고, 첫 3년은 공교육 시스템에 그리고 다음 3년은 나머지 3개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행단계를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 개발교육 강화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교원연수, 교과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 분야입니다. 또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성인교육, 청소년들을 위한 비정규 교과활동 강화, 대학 내 개발교육 수업 제공, 출판 및 연구 장려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원조기관인 ADA 자체적인 개발교육 전략입니다. ADA는 1994년 이후로 매 3년마다 개발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994년 ADA는 KommEnt (Society for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라는 개발교육 전문기관에 개발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전반의 업무를 위임한 바 있으며, 이 업무는 2005년 다시 ADA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KommEnt는 개발교육 실무자 역량강화와 개발교육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DA는 1979년 이래로 개발교육 자금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연간 4백만 유로(약 55억 원)를 개발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영화, 교재 제작, 연구, 문화 활동에 공여하고

1) 유럽 국가들은 Development Education, Global Education,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등 개발교육을 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지니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Global Learning을 사용함.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체 개발교육 지원 자금 중 ADA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ADA 외에도 오스트리아 지방정부 및 카톨릭 종교기관이 개발교육 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 9개 지방정부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 지방정부는 4십만 유로(약 5억 5천만 원)를 개발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100개가 넘는 NGOs가 개발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공정무역, 젠더, 환경, CSR 등 기관간 주제에 따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흥미로운 개발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오스트리아 개발교육 전략 그룹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개발교육 컨퍼런스입니다. 첫 해인 2012년은 개발교육 자체에 대한 공감대를 구성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은 글로벌경제위기(Global Economic Crisis)를 주제로 글로벌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떻게 교육할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모색할지를 논의하였습니다. 또 올해 11월에 개최된 2014년 컨퍼런스에서는 인종차별반대교육(Anti-Racists Education)과 개발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교사, NGO 실무자, 인류학자들이 모여 학교 내에서 인종차별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개발교육은 하나의 세부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과정에서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 이해,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구조적 폭력과 환경파괴문제 등이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문학 과목에서 이란이나 인도 등의 유명한 설화를 포함함으로 기존의 자국 혹은 서구권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남반구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오스트리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교육, 인권교육,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기존에 분리되어 별개로 실행되던 유관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개발교육은 핵심적인 교육접근이 참여적 교육,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 향상, 태도 및 가치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서 타 유럽 국가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발교육

네덜란드는 국제개발협력의 국민 지지를 위한 개발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여, 개발교육과 관련한 많은 자금 지원을 해 온 국가입니다. 특별히 ODA에 대한 대국민 인지제고를 위해 개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인 NCDO를 1970년에 설립하여 활발한 개발교육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1975년 이래로 UN의 권고안인 ODA/GNI 0.7% 비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왔으며, 2011년 기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양의 ODA를 모두 무상협력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에 대한 애정과 의지는 외교부 내에 외교부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과 개발협력장관(Minister of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두 개의 장관직을 두고 있는 독특한 구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림1.>
네덜란드 학생용 개발교육 잡지인 SAMSAM 표지

개발교육 전담기관인 NCDO는 개발교육 자료 발간, 캠페인 개최, 시민사회 개발교육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특별히 SAMSAM이라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초등학생의 70-80%에게 전달되며, 교사 매뉴얼과 온라인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식수, 환경, 식량 등 다양한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어 제목인 SAMSAM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하에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교육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NCDO, 개발교육을 시행하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네덜란드 국민들은 유럽 내 타 국가에 비해서도 개발 이슈에 능통하고, ODA에 대한 국민 지지는 강력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었으며,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덜란드의 원조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최근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네덜란드의 원조를 받아왔던 신흥공업국의 네덜란드를 넘어서는 경제적 약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작된 유로존의 경제침체, 원조효과성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들이 국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네덜란드 개발교육은 기존의 개발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을 기치로 한 네덜란드와 세계와의 상호연계성 이해로 방향을 대폭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발교육 내에서의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북반구가 남반구에게 도움을 주는 기존 원조 패러다임에서 전지구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동시에 네덜란드 자국 내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상호의존성과 협력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네덜란드 교육 시스템 안에 글로벌시민성이 강력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CDO에 연간 9백 6십만 유로(한화 약 128억 7천만 원)를 공여하였습니다.

<표 2. NCDO가 정의하는 글로벌시민성(Global Citizenship) 8가지 요소>

정체성(Identity) - 무엇이 우리를 독특하게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인권(Human Rights) -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평화와 분쟁(Peace and Conflict) - 우리는 어떻게 다툼과 분쟁을 방지하고, 제한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다양성(Diversity) - 세계에는 어떤 다름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과 기후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Wealth) - 세계에서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공평한가?
세계에의 참여(Involvement in the World) - 나는 세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세계에 대해서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앞서 소개해드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발견됩니다. 2014년 8월 유네스코 오스트리아 위원회는 글로벌시민교육 책자를 발간하는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Klagenfrut 대학은 개발교육 실무자와 교사 대상의 글로벌시민교육 3년차 석사과정을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에 개설하였습니다. 개발교육에서의 글로벌시민성에 대한 강조는 비단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다음 표는 2000년대 유럽에서 개최된 개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회의 및 주요 문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 3. 유럽 개발교육 관련 회의 및 주요 문건>

년도	회의명/ 문건명	개최지/ 발행처
2001	문건: Resolution on Development Education	The EU Council of Development Ministers
2002	회의: European Congress on Global Education	마스트리히트, 네덜란드
2002	문건: Global Education in Europe to 2015-Strategy, Policies, and Perspectives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3	회의: Conference on Evaluation and Quality in Global Education	런던, 영국
2005	회의: European Conference on Awareness-Raising and Development Education for North-South Solidarity	브뤼셀, 벨기에
2006	회의: Conference on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헬싱키, 핀란드
2007	문건: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European Union Multi-Stakeholder Group
2007	회의: Informal Experts' Workshop: Development Communication, Advocacy and Education: Tips and Tools for Improving Evaluation	Bonn, 독일
2008	회의: Intercultural Dialogue in Development Education	Ljubljana, 슬로베니아
2008	문건: Building Public Awareness of Development: Communicators, Educators and Evaluation	OECD Development Centre
2010	문건: Development Education and the School Curriculum in the European Union	DEEEP/CONCORD
2010	회의: Developing National Strategies in Global Education	리스본, 포르투갈
2010	문건: Final Report of the Development Education & Awareness Raising Study	European Commission
2011	회의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etencies for Global Citizens	Espoo, 핀란드
2012.7.5	문건: Declaration on Development Education and Active Global Citizenship	European Parliament
2012.11.15-17	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Global Education	헤이그, 네덜란드
2012.12.20	문건: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4.5.7	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ducation of Global Citizens	Espoo, 핀란드
2014.6.24-25	회의: Conference Citizens for Global Educ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브뤼셀, 벨기에
2014.11.20-21	회의: European Conference: Global Justice through Global Citizenship - The Role of Global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브뤼쉘, 벨기에

표 3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10년 이후로 글로벌시민에 대한 회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 7월 5일에 유럽의회가 발간한 “Declaration on Development Education and Active Global Citizenship"이라는 문서는 NGO 혹은 학계가 아닌 유럽의회라는 정부간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Global Citizenship을 논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동일하게 UN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Global Citizenship을 논한 당해 9월에 발족된 UN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과도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

여기서 잠시 왜 개발교육이 글로벌시민성 함양을 고민하게 되었고, 또한 역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의 핵심에 왜 개발 논의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UN의 개발계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정치·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MDGs의 시작으로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연습하게 된 세계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글로벌 정치·경제 거버넌스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개발계와 마찬가지로 UN 차원에서도 거시적인 체제의 변화 없이는 세계의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은 자각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불공정한 무역구조 및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와 같은 거시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NGOs 및 정부원조기관이 아무리 많은 양의 원조를 제공할지라도 남반구의 빈곤문제와 저개발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같은 신자유주의적 원조관행이 남반구의 빈곤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통렬한 비판과, 이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 상황이 이들 개발계가 세계 경제구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을 위시로 한 유럽의 원조기관들은 기존의 빈곤과 원조 중심의 교육에서 글로벌 정의 구축을 위한 참여 촉구로 개발교육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 '주빌리(Jubilee) 2000 부채탕감 캠페인'과 '2005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 캠페인'입니다. 주빌리 2000 부채탕감 캠페인은 1998년 5월 16일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G8 정상들에게 60개국 2,200만 명이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해줄 것을 청원했으며, G8 정상 회담 시에는 7만 명이 영국 버밍엄에 모여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결과, 세계은행과 IMF는 고채무빈곤국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Initiative를 실시하게 되었고,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이들 정상들은 42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1,000억 달러의 빚을 탕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림 2.>
주빌리 2000
부채탕감 캠페인

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2005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 캠페인'에서는 2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G8 정상들에 공정한 무역구조와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4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영국 수상에게 보내었습니다. 역시 이의 결과로 G8 정상들은 2010년까지 추가로 480억 달러를 빈곤퇴치를 위해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매년 18개 고채무빈곤국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발교육의 중심이 단순히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나은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활동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2014년 뉴욕
Global Citizen Festival에
참여한반기문UN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하지만, UN이 글로벌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게 된 것은 단순히 빈곤과 개발문제에 국한된 이유만은 아닙니다. 자본에 의한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해 법인세 인하, 조세회피,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의 문제에서 다국적 기업의 힘이 국가주권을 넘어서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아래에서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국가가 더 이상 자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촌 문제는 비단 환경, 분쟁, 질병 등의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까지도 전지구적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우며,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UN을 위시로 한 국제기구 내에서 글로벌 정치·경제 거버넌스 및 글로벌시민 양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왜 개발교육이 글로벌시민성 함양을 핵심으로 포함해야 하며, 또한 글로벌시민교육이 단순한 국가 간의 이해 제고 및 국제교류 강화를 넘어선 개발 의제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MDGs와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경제개발 이슈가 다시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림 4.> 2015년 이후 개발목표 통합 프레임워크



사회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전,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개발계가 강조해왔던 경제성장 모델이 다시 회귀한 것입니다. 물론 'inclusive'라는 단서는 달려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 모델의 실패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경제개발 모델은 소위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으로 지칭되는 국가주의 산업화 모델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가 산업화되는 경제발전 모델과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상극의 목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2015년 이후 개발목표입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제정되는 것이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이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아직 누구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글로벌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지구공동의, 인류전체의 문제의 해결을 찾아낼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공멸이냐 상생이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고민하는, 한 국가의 시민과 지구공동체의 시민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보유한 신인류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시민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가며

2015년은 세계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기념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9월 UN 총회에서 수립될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인 SDGs의 제정이, 국가적으로는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이 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계교육포럼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시민교육의 핵심 지지국으로써 본 교육을 Post-EFA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정부의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교육의 양적·질적면에서 성숙함을 보이며,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보유한 유럽의 개발교육과는 다르게, 한국은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 모두가 걸음마 단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개발교육의 가장 기초 단계인 빈곤과 개발에 관한 교육, ODA에 대한 교육조차도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이 가장 진보한 형식의 교육이자, 유럽 국가들마저도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제사회조차도 이를 배워가기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의 핵심 지지국이 된 것은 한국이 또 한 번의 압축성장과 기적을 요구받게 된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유럽 선진원조공여국의 개발교육은 1990년대부터 기존의 세계 빈곤 현황과 국제개발활동에 초점을 맞추던 교육에서 공정한 무역구조 및 부채탕감 이슈를 포함한 글로벌 정의 관점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EU 국가 내 통합 강화와 MDGs 수립이 개발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단순한 개발 차원을 넘어선 상호연계성, 글로벌시민으로써의 권리와 책임을 논하는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으로까지 지경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개별국가의 시민권에 더해 주어진 유럽시민권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identity)이 글로벌시민이라는 개념을 훨씬 받아들이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UN을 중심으로 강조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반한 글로벌시민성 함양은 지구촌의 빈곤과 불의의 문제가 단순한 원조나 개별 국가 차원의 협력으로만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은 데서 기반합니다. 또한,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국한된 MDGs를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목표인 SDGs 수립을 앞두고 있는 UN에게 글로벌시민교육은 SDGs의 성패가 달린 핵심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교육은 ODA 교육에 아직은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며, NGO의 교육은 몇몇 기관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정의 관점으로 옮겨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빈곤, 개발, 기부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시민교육은 기존의 국제이해교육,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교육이 지금 유럽이나 UN이 말하고 있는 교육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아직도 한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ODA, 국제개발협력, 원조 자체에 생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빈곤, ODA, 원조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며, 나눔의 문화가 익숙지 않기에 나눔과 기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1990년대에서야 본격적으로 국제화가 시작되어, 여전히 지극히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한국 사회와 한국교육에 국제이해교육과 국제교류프로그램 역시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역시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기간(2005-2014) 동안 많은 노력과 진보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시민교육을 한국의 아젠다로 세계교육포럼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교육의 국내외 이행은 한국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책임입니다. 즉 현재 한국은 타 국가들이 반세기가 넘는 시간에 걸쳐 진행해 온 변화를 한순간에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압축성장과 기적이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 보다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글로벌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간의 교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협력하여 이를 공교육, 성인교육 및 영유아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버거운 숙제일 수 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게 불가능한 미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타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어느 국가도 대한민국만큼의 강력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의지와 실행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인 개발계와 교육계 모두가 '급격한 ODA 증가로 인한 대국민 이해증진의 필요성'과 '세계교육포럼 개최국으로써의 글로벌시민교육 지지'의 이유로, 이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2000년 이후에서야 본 교육을 위해 교육계와 개발계가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후발주자인 한국의 경우 최근 교육계와 개발계간의 많은 만남과 의견 나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토대 위에, 앞서 본 교육을 만들고 실행해 온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더한다면,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시민을 양성하는 일이, 그리고 이를 통해 SDGs를 현실로 이루는 일이 결코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1> 월드비전(2014). 세계시민교육 포럼 자료집. 서울: 월드비전
2>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2009)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입문. 서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3> Austrian Strategy Group Global Learning(2009). Strategy Global Learning in the Austrian Education System. Vienna: Austrian Strategy Group Global Learning.
4> Frans van den Boom, Jos Juylen(2013).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Global Awareness in Educational Systems-A Dutch Contribution.*『Global Education in Europe: Policy, Practice and Theoretical Challenges』, New York: Waxmman Publishing Co.
5> NCDO. Global Citizenship: Well Done, With Ketchup. Amsterdam: NCDO.
6> NGDO(2012). Global Citizenship: From Public Support to Active Participation. Amsterdam: NCDO.
7> Neda Forghani-Arani, Helmuth Hartmeyer(2013). *Developing a National Strategy for Global Learning in Austria: The Story so far.*『Global Education in Europe: Policy, Practice and Theoretical Challenges』, New York: Waxmman Publishing Co.
8> United Nations(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New York: UN.

웹사이트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웹사이트
http://www.odakorea.go.kr/
국제연합(UN) 웹사이트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8927#
GENE 웹사이트
http://gene.eu/
NCDO 웹사이트
http://www.ncdo.nl/
Open Working Group 웹사이트
http://www.beyond2015.org/open-working-group-sdgs
ODA Watch 뉴스레터 11호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category=251&page=6&document_srl=1184
The Guardian 2014.12.4 뉴스기사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4/dec/04/un-secretary-general-says-no-plans-to-reduce-sustainable-development-goals?CMP=share_btn_fb

인쇄 2015년 5월 9일
발행 2015년 5월 13일

발행인 김영목
발행처 KOICA ODA교육원
주소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http://oda.koica.go.kr
전화 031-740-0500

업무자료 ODA교육원, 2015-02-085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므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발간에 참여해주신 분들

편집위원장
신의철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파트너십본부장

편집위원
이경상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원장
조병선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팀장
박수연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전문관

집필
박수연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전문관

내지 디자인
박신영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직원

